



‘시간만 절약할 수 있다면...’

워크맨과 MP3에서 고가의 PMP까지

일본 소니사의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인 ‘워크맨’은 모델명을 넘어 동종기기를 총칭하는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1980년대를 풍미했던 학습 보조기였다. 듣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어 학습 테이프를 재생시켜 학교와 집을 오가며 이동 중에 활용했던 워크맨이 제왕의 자리를 내어준 것은 1990년대 후반, 컴퓨터의 보급으로 시작된 MP3 플레이어가 등장하고부터다.

MP3플레이어는 고음질 오디오 압축 기술을 사용한 음원재생기로 카세트 플레이어보다 음질 면에서 우수할 뿐 아니라 휴대의 최대 관건인 무게에서도 200g의 무게가 나갔던 ‘워크맨’에 비해 4분의 1정도인 50g을 넘지 않아 급속도로 인기를 얻었다. CD와 비슷한 음질을 유지하면서도 CD의 5배로 압축이 가능해 훨씬 많은 양을 휴대하며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인기의 한몫했다.

최근까지 일반 학습교재에 부록으로 나왔던 CD에도 MP3파일을 수록하거나 ‘복제’와 ‘전송’의 용이하다는 이점을 살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했다. 워크맨과 MP3플레이어는 모두 시판 초기부터 10~3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는 고가의 상품이었지만 ‘공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품목이었다. 어학용의 대표주자는 이들 외에도 녹음, 반복 재생? 청취가 가능해 고시생들이 강의녹음, 테이프 속청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일명 ‘찍찍이’를 비롯해 졸업, 입학 시즌에는 판매가 급증한다는 전자사전 등이 아직 애용되고 있다.

어학기가 최근에도 일반인들의 찾는 학습기구라면 중, 고등학생들은 이와는 별개로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강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습 참고서 출판사의 한 관계자는 “중, 고등학생들은 듣기 능력 뿐 아니라 과외와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해 동영상 강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최근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휴대형 멀티미디어 재생기)를 이용한 동영상 다운로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내신과 논술, 수학능력시험 등 총체적인 학습을 위해 학원과 과외 등의 사교육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시간 확보’라는 것.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명강사의 강의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30~60만 원을 호가하는 PMP 제품을 구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오프라인 학원에서 시작한 동영상 강의 다운로드 서비스는 아직 시행 초기단계로서 유료 서비스일 뿐 아니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 PMP를 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학습 참고서 출판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

취재·송보경 기자